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비상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우리 사회 성문화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해결책, 그리고 가정에서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비뚤어진 성문화 “안전지대가 없다”

남성중심 사회가 비극잉태...성의식 개혁·언론 진지한 보도 절실

96. 7. 11

김미경 기자

◇ 어린이 성폭행사건 사례(92년 1월~현재)

△92년 3월=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사는 초등학교 3년생 여자어린이가 삼촌과 당숙에게 성폭행당해 오다 학교길에 실종.

△92년 6월=충북 청주시 사직동 용화사 승려 김종호(53)씨가 7살, 5살 여자어린이를 잇따라 강간한 혐의로 구속.

△92년 7월=전북 부안군에 사는 삼렬(53)씨가 12살 난 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오다 구속.

△92년 7월=전 광주 성화원 원장 경훈(70)씨가 아동보육시설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형 선고.

△93년 4월=서울 관악구 신림5동 환동직업안내소 이종호(30) 사무장 초등학교 6년생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93년 5월=여자 초등학교생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불에 태워 죽인 혐의로 구속된 정석범(22·경기도 부시)씨가 어린이 허 절단사건 범인으로 밝혀짐.

△94년 1월=여자 초등학교생 성추행한 뒤 살해 암장한 박 아무개(16·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군이 강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

△94년 4월=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아무개(48) 교사 구속.

△94년 5월=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자녀어린이를 유괴해 성추행한 뒤 숨겨 한 전석재(30·울산시 중구 유곡)씨 구속.

△94년 5월=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한 초등학교 김지송(54) 교감 구속.

△94년 6월=자신이 학장으로 있는 어린이선교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부산 금정구 목양선교교회 최일홍(48) 목사 구속.

△95년 2월=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집을 보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전경 유상진(21·서울 성동구 금호4가)씨 구속.

△95년 4월=초등학교 6년생 여자어린이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성일아파트에서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자를 피하려다 떨어져 중태.

△95년 12월=유아무개(37·서울 도봉구 방학동) 어린이축구단 코치가 초등학교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다 구속.

△96년 3월=네살짜리 여자어린이를 추행한 뒤 우물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함아무개(17·경북 상주시 함창읍)군 구속.

△96년 4월=서울 수서주공아파트 1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1·4년 여자어린이들을 상습 성폭행해온 이명철(28·서울 강남구 자곡동)씨 구속.

△96년 6월=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 원장이 10여명의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며 학부모들이 항의.

△96년 7월=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어린이를 마을주민 14명이 성폭행한 사실 드러남.

최근 잇따른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약자를 괴롭히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성문화의 근본적 변혁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최근 사례 등을 통해 가해자가 대부분 정신질환자 등 특이 병력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으로, 남성이면 누구나 언제라도 가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성문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0일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은 힘없는 소녀가장이나 유치원생 등 약자를 마을 주민이나 교장 또는 원장 등 강자가 함부로 성적으로 학대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폭력으로 강탈해왔던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의식구조가 성문화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평등한 성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폭증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올해들어 4월말까지 상담소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 3백69명 중 19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많은 54%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95년의 43%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어린이·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비뚤어진 오늘의 성문화 현주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성문화는 텔레비전·영화·신문 등 대중매체가 더욱 조장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양해경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은 “예컨대 영화나 드라마·신문만화 등이 성관계를 묘사하면서 여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도 진짜 거부의사가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대중매체의 폐해를 지적했다.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서 남자가 여자로부터 성을 얻기 위해 물리력을 쓰는 장면을 자주 방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

◇ 알림 = ‘고정관념을 깬다’ 기사 넘쳐 합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경기도 안산 한 유치원장의 원아 집단성폭행 고발시위에 참석한 한 학부모의 표정이 착잡하다. 유창하 기자

성과 어린이에 대한 공격을 가르치는 대중매체의 성폭력 묘사를 감시하는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강간은 쾌락을 줄 수 있는 성표현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 강간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 등을 인식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각 언론사에 ‘여중생, 초등학교 성폭력사건 보도태도에 대한 항의서’를 보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운동의 하나로 보인다.

◇ 청소년 성관련 상담기관 전화번호

한국성폭력상담소	(02)529-4271~2	자비의 전화	(02)737-7374~6
가족과 상담소	(02)643-8424	나눔의 집	(02)605-4580
한국여성의 전화	(02)269-2962	서울시아동상담소	(02)814-0020
서울YMCA 청소년상담실	(02)599-8462	전북청소년상담실	(0652)231-2360
서울YMCA 청소년센터	(02)747-7417	광주	(062)226-8180
서울 청소년회관	(02)267-2111	부산	(051)804-5001
청소년대화의 광장	(02)253-3811	충남	(0417)554-2131
한국청소년개발원	(02)578-7924	대구	(053)351-2000
홍사단 청소년연구원상담실	(02)744-2056	대전	(042)257-2000
아동학대예방협회	(02)776-5660		

성폭력피해자 상담건수

*자료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